

사회

아파트 고드름 제거 중 추락사 한 소방관

국가유공자 커녕 순직처리도 어려워

광주시소방본부 “대민지원도 주요업무…소방법 개정을”

아파트에서 고드름을 제거하던 중 사고로 숨진 소방관(광주일보 1월 24일 7면)에 대한 순직 심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소방본부의 걱정이 깊어가고 있다.

현행법상 소방관의 고유 업무가 아닌 고드름 제거 등 대민 지원활동을 벌이다가 숨진 소방관은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8일 광주소방본부와 광산소방서는 지난날 22일 광주시 산구 월곡동 한 아파트 12층에서 고드름 제거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이석훈(36) 소방관을 순직 처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 소방교의 순직 여부는 오는 3월 말까지 열릴 예정인 행정안전부 순직보상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순직심사위는 소방법 등을 고려해 이 소방교의 순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소방법은 소방관의 고유업 무인 화재진압 등의 업무 수행 중 숨진 소방관에 대해서만 순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대민 지원활동 중 숨진 이 소방교가 순직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방법 제14조2항(보호)에 따르면 소방관이 화재진압·구조·구급 업무를 수행중이었거나 이를 업무

와 관련된 업무 또는 교육훈련을 받던 중 사망한 경우만 순직군경과 유족으로 인정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을 그대로 따를 경우 아파트에 매달린 고드름 제거 작업, 즉 대민 지원활동 중 추락해 숨진 이 소방교는 사실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이 소방교의 가족들은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한꺼번에 지금되는 1억6000여만원의 일시보상금은 물론 매달 230여 만원의 보상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은 소방관들이 본연의 업무 이외에도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각종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현실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다. 실제 광주소방본부만 하더라도

계절에 따라 고드름 및 벌집 제거, 배수 및 급수지원 등 한 달 평균 300 건 이상의 민원을 해결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실을 반영한 소방법 개정과 함께 이 소방교에 대한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방관 고유 업무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 해결 중 숨진 소방관들 역시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광주소방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소방관들은 일단 출동할 수밖에 없다”면서 “부디 이 소방교가 순직처리돼 남은 가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김호기자 kimho@

소방관들 ‘물과의 전쟁’

구제역·AI로 2만9740t 공급 방역용수 동나

겨울철 화재와 싸워야 할 소방관들이 때 아닌 ‘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때문이다.

광주소방본부와 전남도소방본부는 전국적으로 구제역과 AI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해 12월 초부터 18일 현재까지 시·도내 방역초소에 각각 640여t, 2만 9100여t 등 총 2만9740t의 방역용수를 공급해오고 있다.

이 양은 소방서에서 운용중인 10t 용량의 소방 물탱크차량 2974대 분량에 달한다.

이들 소방분부 관계자는 “보통 겨울철에는 소방관들이 화재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겨울은 반대로 물 때문에 쓰레기 이 바쁘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목포지역 초등학생들

내달부터 전원 무상급식

3월부터 목포지역 초등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시는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던 무상급식을 다음 달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전남도교육청과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상급식 예산 86억원은 목포시와 전남도교육청이 50%씩 부담하며 도교육청은 소요 예산을 오는 4월 추가 경정예산에 편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무상급식을 오는 2013년에 중학교, 2014년 이후에는 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지원하고자 올해 57억8천만원과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4억원을 편성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봄이 왔나봐”

광주의 낮 최고기온이 9.8도까지 오르는 등 봄기운이 완연해진 18일, 형형색색으로 물든 북구 운정동 화훼단지에서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한수 익산시장 직위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이 일단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났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호제훈)는 18일 익산 지역 시민단체에 운영 경비를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한수 익산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2007년 7월께 ‘익산대·전북대 통합학의서 이행 촉구 익산시민 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장 등에게 “운영 경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서 5개월 후에 이 단체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돼 500만원을 구형받았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회장실 인심 불만 주며 휘둘러 철창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여인숙에 들어간 60대 행인이 자신을 수상한 사람으로 취급한 40대 투숙객을 미구 폭행해 경찰서행.

○…18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손모(69)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25분께 광주시 남구 월동한동 이인숙 2층 복도에서 투숙객 전모(42)씨의 가슴과 얼굴에 수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그러나 기존 배정 학생수만 367명에 달하는 성덕중학교에 50여명이 추가로 입학하면 ‘콩나물 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실초 학생들은 지난해까지 모두 성덕중에 배정됐으나 올해는 수완초 학생 대부분이 성덕중에 배정되면서 선의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조사 결과 여인숙 앞을 지나던 중 소변이 마려웠던 손씨는 여인숙에 들어가 마주친 전시에게 “화장실이 어디니”고 물었다가 “여기에 사는 사람도 아닌데 왜 화장실을 물어보느냐. 수상한 사람일세”라는 대답을 듣고 화감에 폭행한 것으로 판명.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손바닥 체벌’ 교사에 배상 책임

법원 “254만원 지급하라”

지각과 결석을 반복하고 학습태도가 좋지 않아 제자의 손바닥을 수십차례 회초리로 때린 교사에게 순회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7단독 정경근 판사는 조모(여·20)씨가 고등학교 교사 노모(여·5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 154만원과 위자료로 모두 254만원

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로 재직 중 이던 노씨는 2008년 11월 제자인 조씨가 결석과 지각을 자주하고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는다면 나무회초리로 조씨의 손바닥을 40여회 때리는 등의 체벌을 가했다.

조씨는 이 체벌로 양손에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염증 등 상처를 입었다며 254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구청 청원경찰, 공무원 업무 논란

교통단속·산불감시 등 수행…대우는 계약직 수준

광주시 각 구청에 배치된 청원경찰이 법적인 근거 없이 노점·불법 주정차 단속 등 기능직·행정직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맡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광주지역 5개 구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각 구청에서 근무 중인 청원경찰 수는 ▲동구 29명 ▲서구 18명 ▲남구 28명 ▲북구 36명 ▲광산구 41명 등 모두 152명이다.

구청 청원경찰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구청사 등 공공기관 청사와 체육관, 도서관 등의 시설 경비업무를 맡고 있다. 현행 청원경찰법 제3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기관·시설·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해당 구역의 경비를 맡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각 구청에서는 이들을 시설 경비 이외에도 총무과(주차장 관리), 건설과(노점상 단속), 공원녹지과(산불감시), 교통과(불법 주정차 단속) 등 다른 부서에 배치해 기능직·행정직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맡기고 있다.

더구나 이들 청원경찰은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고도 처우는 공무원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드러나 반발을 사고 있다. 청원경찰은

공무원과 같은 신분보장과 진급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신분이 불안정하고, 봉급 및 수당도 낮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모 구청 청원경찰 10년차 월급(본봉)은 약 136만원. 반면,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8급 145만원으로 직급수당 등을 감안하면 이보다 격차가 더 크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원경찰들은 이러한 점을 들어 그 동안 법 개정(집단행위 금지 조항 삭제·경찰 공무원의 일정 직급에 준하는 봉급과 수당제 적용·퇴직연령 60세로 상향 등)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청원경찰의 친목단체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일명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경비를 맡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청 관계자는 “청원경찰은 원칙적으로 다른 부서의 일을 맡겨서는 안되지만, 인력이 부족해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모 구청에서 근무 중인 청원경찰 김모(42)씨는 “내 업무만 보면 문제가 없는데, 공무원과 유사한 일을 보고도 처우는 떨어진다는 생각만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생활 게시판

회족

▲이상태(광주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홍영옥씨 삼남 민(고려중 교사)·군 윤진구(사업)·고영심씨 장녀 유현(전남대병원 원무과)양 = 19일(토) 낮 12시 30분 광주 조선 컨벤션웨딩 1층.

▲조옥자씨 차남 최정훈군 주재호·호·양영심씨 막내 선오양=19일(토) 낮 12시 30분 호텔 텔무등파크 4층(다이아몬드홀)

▲김희환(전 농성 1동장)·윤한금씨 장남 정득군 주영식·이봉복씨 장녀 민경양=20일(일) 낮 12시 20분 갤러리아웨딩컨벤션 1층(다이아몬드홀)

▲정연진·김영희씨 장남 후석군 김성산(금호고속 사장)·백현심씨 차녀 수아양=25일(금)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 호텔 5층 그랜드볼룸.

부음

▲이순옥씨 별세 김정왕(두산캐피탈 상임고문)·왕복(조선이공

원 장례식장 23호실 02-2258-5940.

▲박정심씨 별세 김태환(전 북구의원)·성자씨 모친상=발인 19일(토) 무등장례장 101호 062-515-4488.

謹 故人의 冥福을 빙니다弔

故 박명수 님(여/50세)
주: 박전수·회수: 박현선·제: 박철증·한종·죽: 박영자
• 발인: 2월 19일 08시00분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50-4412

故 김경례 님(여/97세)
주: 정광현·태여
• 발인: 2월 20일 09시00분 · 장지: 밀양동묘역
• 연락처: 250-4410

故 김경례 님(여/97세)
주: 정광현·태여
• 발인: 2월 20일 09시00분 · 장지: 밀양동묘역
• 연락처: 250-4400

故 박준철 님(남/65세)
주: 박재수·대봉·길수·오수·만수
• 발인: 2월 19일 10시00분 · 장지: 담양장관면 산성
• 연락처: 250-4400

故 장현우 님(여/72세)
주: 김명숙
• 발인: 2월 20일 10시00분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50-4400

故 박준철 님(남/65세)
주: 박재수·대봉·길수·오수·만수
• 발인: 2월 20일 10시00분 · 장지: 담양장관면 산성
• 연락처: 250-4400

故 장현우 님(여/72세)
주: 김명숙
• 발인: 2월 20일 10시00분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50-4400

故 박준철 님(남/65세)
주: 박재수·대봉·길수·오수·만수
• 발인: 2월 20일 10시00분 · 장지: 담양장관면 산성
• 연락처: 250-4400

故 장현우 님(여/72세)
주: 김명숙
• 발인: 2월 20일 10시00분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50-4400

故 박준철 님(남/65세)
주: 박재수·대봉·길수·오수·만수
• 발인: 2월 20일 10시00분 · 장지: 담양장